

# 미수홀! 저은 국악의 소리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7시  
인천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주최/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후원 :  인천광역시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시보조금 기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모든 초목들이 짙어가는 여름을 알리는 시기에 ‘미추홀! 젊은 국악의 소리’ 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을 개최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국악의 예술성과 전통성을 지켜나가고 아울러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분야로 발전시키고자 젊은 국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뜨거운 땀방울을 흘려 노력한 결과 오늘의 공연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선율의 공연을 통해 옛 것의 소중함과 멋스러움을 만끽하며 전통문화예술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국악이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한번, 국악관현악단 연주회를 위해 함께하신 출연진과 관계자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지회장 유 은 자

# 관현악단 소개



## 지휘자

### 최 여 영

-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이수자
-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5-2호 이수자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악지휘 수료
- 2007신진예술인작곡가공모전 당선
- 2018평창올림픽 1시군1대표예술작품 음악감독(원주시편)
- 전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악장 역임

## 인천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

• 가야금	정연선, 이자경, 박신향, 신민아, 이다윤, 최민서
• 아쟁	김정희, 조우리
• 대금	김가현, 김정아, 김진석, 송준화, 유형구
• 피리	구경훈, 김주영, 박종국, 박준구, 박지혜
• 해금	박수아, 김주희, 변승주, 이동주, 이어진
• 타악	권영주, 김성현
• 드럼	박준호
• 베이스	장재혁
• 기타	문성억
• 건반	이용준, 최재원



#### 사회자 | 최다빈 아나운서

- 現 TBN 한국교통방송 경인지부
- 前 도봉구청 DBS 아나운서
- 現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 現 SNS 문화진흥원 아나운서 홍보대사



#### 국악인 유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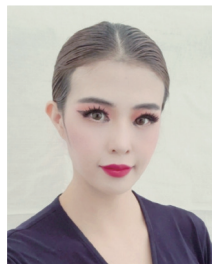
‘국악 신동’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태평양은 여섯 살 최연소의 나이로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하고, 2003년에는 ‘수궁가’를 완창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통달, 성창순 명창을 사사했으며, 2004년 타악을 공부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유학길에 오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16년 1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립창극단에 입단했으며, 창극 〈오르페오전〉, 〈트로이의 여인들〉, 〈흥보씨〉와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춘풍이 온다〉와 KBS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하여 활약하고 있다.



- 국립창극단 단원
- 2010년 : 대한민국 인재대상 수상
- 2010년 : 제28회 전주학생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원
- 2012년 : 제28회 동아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
- 2014년 : 세계일보 선정 기사 미래한국을 빛낼 13인 선정
- 2017년 :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 2018년 : 석세스 어워드 전통음악부분 수상

#### 스토리무용단

스토리무용단은 박민주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예술인들로서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전반을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있는 무용단이다. 현재는 전통공연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



지혜미



박지은



박현경

#### 소리꾼 이수현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 민요전공 학사졸업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1호 송서울창 이수생
- 제33회 전국 제주 민요 경창대회 최우수

#### 소리꾼 김영지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1호 송서울창 이수자
- 제21회 경기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 제2회 벽파대상 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 1 인천국악관현악단 연주

### avance

발전이라는 스페인어로 국악과 실용음악의 콜라보레이션한곡으로 웅장하면서 편안한 연주곡이다.

### 고구려의혼

말발굽소리를 나타내는 듯한 강렬한 북소리가 인상적인곡으로 웅장하고 큰스케일로 만주벌판을 달리던 고구려인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낸 곡이다.

### Toward a New future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 한다. 우리음악의 신명과 흥을 통해 코로나상황에 지치고 힘든 모든이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우리음악의 대중화를 보다 확장 하기 위한 퓨전국악곡으로 해금, 피리의 독주 선율로 악기특유의 산뜻함, 우직함을 통해 펑키리듬과 폴카 등의 다양한 리듬을 가미해 주제 멜로디를 구성하였다. 원작인 실내악 규모에 편성에서 본 공연 연주단체인 인천국악관현악단을 위해 관현악 편성으로 재구성한 곡이다.

### 민요의 향연

우리의 민요 중 잘 알려진 통속 민요로 엮어 새롭게 만든 모음곡이다. 세마치장단의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 중모리장단이며 메나리조인 상주아리랑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경기제 아리랑을 중모리와 신나는 휘모리로 구성한 곡이다.

## 2 송새&민요(협연)

### 송새,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 송새 - [권학문 주자훈]

송서란 말 그대로 서책을 읽는 듯이 한문이나 산문에 음률을 넣어서 외워 소리하는 것을 말하며, 권학문 주자훈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학문 주자훈은 주자가 젊은이에게 타이르는 10가지 훈계이고, 젊은이에게 학문을 하기를 타이르는 훈계이다. 이 두 가지 훈계를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면 훌륭한 선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높은 학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민요 - 태평가, 청춘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곡들로 창부타령을 원곡으로 하여 창작된 태평가와, 청춘에 덧없음을 한탄하는 곡인 청춘가 여러 지방에서 불렀던 어업노동요를 경기민요화한 뱃노래, 자진뱃노래로 구성되어있다.

경기민요 연곡은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곡들로 유희요, 노동요 구성되어있다.





### 3 무용

#### 교방살풀이춤

고도의 예술성을 갖춘 전통시대 기녀들이 추었던 춤의 일종으로, 교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한 교방춤은 기생-기녀 라는 사회 신분적 제도와 무관하게 오늘날에는 무용가들의 전통춤 종목으로써 공연되고 있다. 정민류 교방살풀이춤은 그 몸짓에서 당당함과 기품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즐겁게 풀어내는 살풀이의 진수를 볼 수 있다.

### 4 가야금중주

#### 개논

canon변주곡을 우리 국악기 가야금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가야금의 선율이 아름다운 곡이다.

#### 오봉산타령

경기 민요 중 하나인 <오봉산타령>은 아름다운 오봉산에서 보내는 하루를 묘사한곡으로 가야금으로 해석한곡 이다.

### 5 유태평양(협연)

#### 풍문으로 들었소

<풍문으로 들었소>는 1980년 양키스 골든 디럭스라는 앨범으로 발매한 대한민국의 록밴드 함중아와 양키스의 노래이다. 1980년 이후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됨으로써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곡 중 하나이며 이러한 곡을 유태평양이 불후의 명곡을 통해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출도”대목과 결합하여 선보였다. 당시 전설로 초대된 작사가 장경수 선생은 유태평양씨가 풍문으로 들었소 곡을 선택하였다 하여 갓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 들었다 하였으며, 실제로 편곡된 곡을 들어보니 너무나 잘 어울리는 조화였다 극찬한바 있는 노래이다.

#### 심봉사 눈뜨는 대목

심봉사 눈뜨는 대목은 판소리 심청가중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목으로 판소리가 1인 총체극임을 증명하는 소리이다. 전통그대로 표현될 유태평양의 판소리 한 대목 안에 연기, 소리, 몸짓, 장단의 요소들이 합쳐져 한편의 창극과 같은 효과를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장타령

장타령은 원래 ‘장돌림’, ‘부보상’, ‘장돌뱅이’로도 불린 장타령꾼들이 시장을 흥청거리게 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 부르던 상업노동요로 시작된 노래이다. 장터를 주 무대로 활동했던 각설이패들이 이러한 시장 노래인 <장타령>을 그들의 공연물로 삼게 되면서 <각설이타령>과 <장타령>이 동일한 노래인 양 취급되었다. 오늘날 시장에서 호객을 위해 “골라골라”하고 부르는 노래가 현대의 <장타령>이라 할만하나 이제는 상업노동요라기 보다 가창 유흥요로 성격이 변모하였다.

## 쌍주아리랑, 애국가

상주아리랑은 경상도민요로 앞부분은 경상도 메나리조로 부르는 아리랑인데, 영남들노래 등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며 중간, 자진부분은 정선아리랑의 변형이다. 즉 상주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의 한 계열이 경상도의 메나리조와 만나면서 변형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엔딩곡

## 너영나영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